

전남도, 우수 농수산물제품 유럽시장 진출 돕는다

佛 식품박람회 참가 4개사 선정
마른김·알로에·유자·전복 등 전시
부스 임차료·장차비·통역비 지원

전남도는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4 프랑스 식품박람회(SIAL)에 참가할 기업 4개사를 선정, 지역 우수 농수산물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업체는 목포 ㈜대창식품, 고흥 ㈜에인티앤지, 고흥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완도맘영어조합법인이다.

㈜대창식품은 최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마른김과 조미김을, ㈜에인티앤지는 인공 색소와 방부제를 사용

하지 않은 알로에베라 드링크를 선보인다.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원료로 만든 유자주스, 유자분말, 유자코쇼 등을, 완도맘영어조합법인은 냉동전복을 전시품목으로 선정했다.

프랑스 식품박람회는 독일 쾰른식품박람회(ANUGA), 일본 도쿄식품박람회(푸덱스 재팬)와 함께 세계 3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다. 전세계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중요한 국제적 식품 플랫폼인 이 박람회는 올해는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세계적 식품박람회인 만큼 선정된 4개사는 모두 해외 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출품한다.

전남도는 4개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부스 임차료와 기본장차비,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을 전액 지원하며 항공비는 1개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프랑스 식품박람회는 세계적인 식품 박람회로 전남의 우수 농수산물들이 유럽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라며 "전남 농수산물의 유럽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7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 농수산물 수출액은 4억6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억6519만 달러보다 27.9% 증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지난 2022년에 열린 프랑스식품박람회에 참여한 전남도 기업이 바이어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삼성전자 '비스포크AI스팀', 英 매체 '최고 로봇청소기' 호평

"재질 맞춰 청소, 스마트한 가전"
"AI기반 청소 기능·펫 케어 우수"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물걸레 일체형 울인원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이 유럽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영국 전자제품 평가 전문지 '트러스티드 리뷰'는 비스포크 AI 스팀을 "청소·결레질·살균 기능을 갖춘 3-in-1 제품"이라며 "마룻바닥과 카펫 등이 혼재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로봇청소기의 사용성을 개선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비스포크 AI 스팀은 5개의 센서로 마룻바닥과 카펫을 알아서 구분해 최적의 상태로 청소한다. 카펫의 모 길이가 5mm 이하인 경우 장착된 물걸레를 10mm 들어 올

리고, 5mm보다 긴 경우 스팀 청정스테이션으로 돌아가 물걸레를 탈착하고 오는 방식으로 젖은 걸레로 인한 카펫 이염을 방지한다.

트러스티드 리뷰는 바닥의 얼룩을 스스로 인식해 집중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반복해 걸레질하는 기능도 호평했다. 또 △사물 회피 능력 △강력한 흡입력 △자동 먼지통 비움 △물걸레 자동 세척 등을 장점으로 꼽으며 지금까지 평가한 제품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최고급(high-end) 로봇청소기 중 하나라고 평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스팀 살균 기능을 탑재한 비스포크 AI 스팀을 '2024년도 최고의 견습식 겸용 로봇청소기'로 선정, 10점 만점에 9점의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스팀 살균과 열풍 건조로 물걸레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며 사용자가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알아서 청소를 수행하는 편리함을 강조했다. 바닥의 얼룩을 인식해 스팀으로 물걸레를 대위 오염 부위를 한 번 더 청소하는 '오염 구역 집중 청소', 분당 170회 회전하는 '강력한 물걸레 청소 성능', '진입 금지구역 설정' 등 AI 기반의 청소 기능을 호평했다.

또 비스포크 AI 스팀의 '펫 케어'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수한 청소 성능 뿐만 아니라, 외출 시 반려동물의 이상 행동이 감지될 경우 스마트싱스 앱에서 알림을 받아 원격으로 음약을 재생하는 등 다양한 펫 케어 기능을 제공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소영 기자

현대차그룹·소방청, '전기차 화재 협력체계' 구축

'무인 소방로봇' 공동 개발 나서
장비 연내 250대 소방청에 기증

현대차그룹이 소방청과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안으로 소방청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고도화된 화재 진압장비 지원이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업으로 △지하 화재 진압용 무인 소방로봇을 소방청과 공동 개발하고, △EV-Drill Lance(관통형 방사장치) 진압장비 250대를 소방청에 기증한다.

우선 현대차그룹과 소방청은 지하 화재 진압을 위한 '무인 소방로봇'을 공동개발해 내년까지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별 특수구조대에 각 1대씩 배치하고 이를 소방관의 진입이 어려운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무인 소방로봇은 현대로템에서 개발 중인 '다목적 무인차량'을 기반으로 소방청의 요청사항인 △65mm 방수포 △열화상 카메라 △분무 장치를 추가해 화재 진압 역량을 갖춘 소방용으로 제작된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2021년 처음 육군에 납품돼 현재 시범운용 및 전수시험 등에 실제 투입되고 있다.

무인 소방로봇이 개발되면 무선 원격 조종을 통한 화재 진압이 가능해져 지하 주차장 내 농연과 열기로 인해 소방관의 진입이 어려운 지하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EV-Drill Lance 진압장비' 250대를 연내 소방청에 기증한다.

EV-Drill Lance는 수압을 이용해 자동차 하부의 배터리팩 아랫면에 구멍을 내 배터리 내부에 물을 뿌려 냉각하는 '직접 주수 방식'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로, 전기차 소화시간 단축을 위해 현대차그룹 내 제조솔루션본부, CSO본부가 협력사와 공동개발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화재 진압을 수행하는 소방관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이번 협력이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방청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1년 소방청과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용 차량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3년간 약 300대의 시험차를 제공해 소방대원의 교육과 선제적 사고 대응 훈련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소방청 및 한국자동차공학회와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기술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박소영 기자

산단공 광주본부, 지역 산단 문화사각지대 해소 박차

'예술로 어울림 산업단지형' 추진
임직원·주민 대상 '3D펜아트'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광주지역 본부는 문화 소외지역인 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위한 '2024년 예술로 어울림 산업단지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전담해 올해 6월 사업 수행 기관 선정을 마치고 수요기업 모집 및 프로그램 보완 후 지난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

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 문화 격차를 줄임으로써 '찾고, 머물고,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구현을 목표로 한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예술약방은 '찾아가는 예술약방'이라는 타이틀로 총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입주기업의 업력을 기록하는 '예술로 역사쓰기', 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즉흥극 제작프로그램 '나의 인생드라마', 입주기업의 대표 생산제품을 소재로 예술작품을 구현하는 '3D펜아트' 등 총 9개의 산업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소영 기자

이번 프로그램들은 공연, 악기 배우기 등 기존 문화프로그램들과 달리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임직원, 인근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기업의 역사와 생산품을 작품화하는 산단 맞춤형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황상현 산단공 광주지역본부장은 "2024년 산단맞춤형 문화사업을 통해 입주기업 임직원의 문화적 니즈를 충족시켜 산업단지 공간이 생산기능 외 청년이 모이고 즐기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문화융합선도산단 조성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광주권 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이 문화가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ibo@jnilbo.com

재테크 칼럼

워렌버핏, 앙드레 코스톨리니, 피터린치, 하워드 막스 등 주식 투자자라면 한번쯤 들어 봤을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단기間に 사고파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가치 있는 주식에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몇 번 돈을 딸 수도 있지만 트레이딩이 습관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패배자가 될 확률이

단기 트레이딩은 눈 감고 닥트 던지는 모험

매우 높다고. 주식투자를 비롯한 모든 투자는 100% 승리가 없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높은 장기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다.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투자자라면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주식을 시작할 때부터 귀가 아프게 들었을 터다. 하지만 기업의 내재가치를 분석하고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골라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주식이 하락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안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모든 인간이 갖는 공통적인 심리일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는 어느 순간 트레이딩을 선택하게 되고 몇 번 승리하게 되면 마치 자신이 탁월한 투자실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어느새 사고파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얼마 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면서 행동경제학 창시자인 데니얼 커너먼은 주식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매매의 착각에 대해 언급을 했다. 트레이딩을 하는 개인 투자자건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건 똑같이 매년 연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트레이딩은 거의 주사위 굴리기와 같다는 것도 그의 주장이었다. 실제 트레이딩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주관적인 착각에 빠져 자신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런 투자는 결국 눈을 감고 닥트를 던지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투자의 세계는 쉽게 돈을 주지 않는다. 투자자보다 백배는 더 똑똑한 시장은 늘 투자자를 시험하고 괴롭힌다. 이 시험에 들지 못한 투자자는 시장이 냉정하게 내쳐버린다. 거장들은 내일보다는 먼 훗날을 예측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한다. 저평가된 성장주에 장기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거장들을 따르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 훗날의 열매 또한 단기 트레이딩 보다는 인내했던 투자자에게 더 풍성하고 알차게 돌아올 것이다.